

#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을

### 군산시, 지엠 본사 방문 “정부-GM 협상안 명문화”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내 시민단체가 정부와 한국GM 본사 측에 조속한 군산공장 활용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4일 군산시 한준수 부시장을 비롯한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군산 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 등은 한국GM 본사를 방문해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카허카렘 사장 대신 조현수 부사장, 황지나 부시장과 만난 방문단은 군산공장의 폐쇄발표로 초토화 된 지역의 경제상황 및 위기사황을 설명하고 공장의 제3차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아이 러브 세보레, 아이 러브 군산’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한국GM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준 군산시를 카허카렘 사장이 방문해 GM군산공장의 활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



군산시 한준수 부시장을 비롯한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군산 경실련 서지만 집행위원장 등 지난 4일 한국GM 본사를 방문해 군산공장 활용 대책을 요청했다.

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문단은 초토화 되어가는 군산시를 회생시키려면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GM협상안의 무조건 명문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5월 중 한국GM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지원방법을 확정하고 구조조정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점검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보건소 직원과 금연구도원 15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972개소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도현해나지오, 지곡동 현대엘코, 나운현대3차아파트)와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반에서는 금연정책에 술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민평당 군산시장 후보에 박중서 확정

민주평화당은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로 박중서 예비후보를 최종 결정했다.

박 후보는 최근 권리당원 50%와 지역주민 안심번호 50%의 방식으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박중서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 공장 사태 등으로 난과 위기에 몰린 ‘군산호’를 구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받았



다”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개항 이래 군산은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아 거리마다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 기업들도 떠나고 인구도 점점 줄어 시민들은 하루하루 실망과 좌절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희망은 희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말처럼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출마의 변을 전했다.

한편 박중서 후보는 권리당원 405표와 안심번호 248표를 득표해 권리당원 258표, 안심번호 176표에 그친 김귀동 후보를 20%가 넘는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농기센터, 서울 현대백화점 등서 탐마루 수박 판촉행사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중동점, 미아점, 신촌점 등 4개 점포에서 탐마루 수박 판촉행사를 가졌다.

올해부터 현대백화점에 입점하는 탐마루 수박은 1월초에 정식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기작 수박으로 전북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

장에 선보인다. 익산 수박은 용안, 망성, 용동, 왕궁 등에서 200여 농가가 185ha를 재배하고 있고 수박(1기작), 수박(2기작) 재배 후 조생종 벼를 재배하는 작형으로 토양 병원균 밀도가 낮추고 염류 집적 장애를 해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4개 점포 입점기념 판촉

행사는 익산탐마루조공법인, 익산원협 산지유통센터,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수박재배농가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매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점포별 시식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탐마루 수박은 당도가 11.0 브릭스(Brix) 이상 나오는 고품질 수박으로 14,000원에 판매되고 올해 8월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5일은 어린이날... 마음껏 뛰어 놀았다

###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서 '한마당 잔치' 열려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군산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지난 5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시가 주최하고 (사)삼동청소년회 군산지회 및 군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한마당 잔치가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유아놀이, 가족마당, 어린이·청소년마당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와 페이스페인팅, 미아방지 퍼포먼스, 소방안전 체험 등 볼거리마당 등 민속 큰잔치를 통해 전통과 민속을 체험하며 화합과 양보 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희망 큰잔치를 통해서 리틀

트리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과 어린이 동시 백일장대회, 부스체험, 먹거리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를 꿈꾸는 주인공들에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선물했다.

한마당 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와 체험행사 및 먹거리 체험 등을 즐기면서 마음껏 뛰노는 하루를 보냈으며,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부모, 행사관계자 및 봉사자 등이 모두 흥겹고 정겨운 한마당 큰잔치를 즐겼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면서 내일의 꿈을 키우는 보람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의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군산을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대안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2명의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0여명의 아동보호시설 어린이들에게는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5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제96회 어린이날 기념 한마당 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 익산에서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

익산시는 익산농촌교육연구회(위원장 윤양진) 주최로 지난 5일 익산 합열초등학교에서 2018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매년 어린이날 치러지는 익산 농촌어린이 한마당 행사는 북부권 지역 농촌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등 또래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예년에 비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바쁜 농번기 5월 영농과 어려운 농촌지역 여건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행복한 어린이날을 선물해 줄 수 없는 농촌지역 부모님들이 생애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익산농촌교육연구회 회원들이 구심점이 되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들과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알차게 준비한 고추, 쌍육놀이, 전통놀이 한마당, 먹거리 장터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 올 봄철 조림사업 완료

### 익산시, 4억6000만원 투입... 새 소득원 헛개 등 심어

익산시는 지역특색에 맞는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올 봄철 조림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억6,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주요 산림 8개소 50ha에 대해 편백·소나무 등 경제수 및 재해방지림 12만본의 묘목을 식재 완료했다.

특히 시는 이번엔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헛개·백합나무 등의 식재도 앞장서 3개소 10ha에 달하

는 밀원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향후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양병의 생태토대가 되는 밀원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밀원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큰나무 공익조림은 팔봉 한솔공원, 성당 힐링공원, 삼기 바람공원, 응포골유아숲체험원 등 4개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수유, 박태기나무 등 열매나무 15종 470본을 식재 완료하여 시민들이 계절별로 꽃과 열매를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혁 산림과장은 “숲 가꾸기 작업 시 밀원수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산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조림지에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가치 있는 숲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림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산림과(☎850-5801)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Hub GUNSAN | 군산시 GUNSAN CITY